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 오후집회는 4남, 6여선교회 주관 예배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집회는 8월 기도의 밤으로 모입니다.

중구용산지방 남선교회 계삭회가 오늘 오후 2시 30분 신창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고온다습한 날이 계속되며 불쾌지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유머 하나, 주변 사람들과 나누어 보세요. 좀 더 기분 좋은 하루가 될 것입니다.

호 11:1~11 / 시 107:1~9, 43 골 3:1~11 / 록 12:13~21
--

민 14:11-19

<p>식 당 봉 사 : 박효선 허정운 홍복선 임미심 김문주 왕영순 정복순 이성범 다음 주 식당봉사 : 이순정 오복순 이선화 박안수 이윤석 원인해 문복순 황현성 오늘설거지봉사 : 2남선교회 다음 주 설거지 : 이준하 김대근 이승진 새 교 우 : 오형일 김명하 이지하 한정훈 김용규 송 명 이승엽</p>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 육 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 육 관	수요일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청파교회



생명의 바람, 평화의 물결 되어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주님, 많은 이들이 뜨거운 도시의 삶을 피해 시원한 산과 바다로 휴가를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몸과 마음을 달구던 일상을 뒤로 하고 주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여행자가 산과 바다의 풍광을 바라보며 사색하고 새로운 힘을 얻듯이 우리도 주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통해 영혼이 깊어지고 새로운 생기를 얻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곳곳에서 신음하는 생명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개발과 발전, 수익과 벌이를 위해 환경을 파괴한 것은 인간인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맡 못하는 생명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 피해가 인간에게 되돌아온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모든 생명과 더불어 상생하는 길을 찾아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 헌금 영수기 ·

7월 28일 헌금영수기는 다음 주 주보에 기재하겠습니다.

장혜숙	백혜숙	심	심	
노순옥	박성희			
김재흥	최경미			
장영숙	신영진			
정경례	진정숙			
박홍재	곽권희			
권미숙	박미영			
이순정	김금순			
이형숙	윤수진			
안홍숙	오현정			
정영선	서정순			
박혜경	조향미			
김재흥	오자영			
이범석	이근식			
신진숙	곽상준			
장영숙	김세진			

마음으로 읽는 글

우리집 마당에 풀이

우리집 마당에 풀이 돌아났습니다
 병든 아버지와 늙은 어머니가 사는 넓은 마당
 처음엔 마당 구석에서 웅기종기 자라나더니
 이제는 한가운데서도 얼굴을 내밉니다
 예전에는 마당에서 풀이 자란다는 것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는데
 식구가 없으니 풀이라도 자라는 것일까요
 큰아들은 자라서 서울로 가고
 막내딸은 광주로 고등학교 가고
 이제는 풀들이 돌아나 오손도손 노는 건가요
 오랜만에 집에 온 나는 마당의 풀을 보고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는 풀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웃는 풀
 김수영의 '풀'이라는 시를 생각했습니다
 우리집 마당의 풀도 그런 상징적인 풀일까요
 수없이 울었던 풀이라는 상징적인 단어가
 아 우리집 마당을 깨우치는 것일까요
 그러나, 일어나기 싫어 마지못해 부스스 얼굴을 내미는 풀들은
 보면 볼수록 식구 없는 우리집을 비웃는 듯이 보입니다
 오랫동안 농약에 길들여진 나는 약통을 메고
 마당에 난 풀, 어머니와 아버지의 가슴에 난 풀에
 썩아 제초제를 뿌렸습니다

- 차창룡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신진식
소속목사 :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소속전도사 : 이재훈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오진훈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땅의 공간에 매몰되어 살지 마십시오. 그 공간은 결코 채워질 수 없습니다. 하늘 주머니를 채우며 사십시오. 그것이 너와 내가 함께 사는 길이요, 이 땅에 하나님나라를 세우는 길입니다.

아멘.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지 못하고 땅의 공간을 채우고 늘리는 일에만 몰두하며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이제는 하늘 주머니를 채우며 살겠습니다. 하늘 주머니가 주는 기쁨을 맛보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붙잡아 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4남, 6여선교회 주관 예배 설교 : 신진식 전도사	기도의 밤 인도 : 이범석 목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이범석 목사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박혜경 권사	최다미 선생 허신열 집사

8	영접위원	조병무 김훈동 박석희 유경순 조항미 이현순
	헌금위원	한상의 정경례

믿음으로 읽는 글

탐욕에 맞서는 교회

우리는 모두 요한계시록에 적그리스도의 상징으로 나오는 바빌론의 창녀가 실제로 누구인지 짐작해볼 만한데, 그 창녀는 일곱 개의 머리와 열 개의 뿔을 가진 짐승의 손에 의해 멸망될 것으로 예언되어 있다. 바빌론의 창녀는 오랜 세월 동안 악의 대명사로 간주되어왔다.

... 진정한 바빌론의 창녀는 탐욕이다. 그는 단순히 어느 시대에 누가 지목한 원수일 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나 인류의 영원한 원수다. 탐욕은 세상의 파멸자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탐욕에 관한 설교를 그처럼 듣기 어려운가?

부자들을 위해 편향된 경제 정책들을 30년이나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대적인 경기불황을 겪게 되었으며, 또한 은행가들과 월스트리트 날강도들의 타락이 우리를 숨 막히는 벼랑 끝으로 몰아붙였음에도 불구하고, 설교자들은 여전히 경제정의 문제에 관해 겁을 먹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 미국에서 가장 신성한 성소는 자유의 여신상이 아니라 월스트리트 입구에 있는 모디카의 청동 황소상이다. 이것이 미국의 황금송아지다.

그렇다면 탐욕을 저주하는 것 이외에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여기서 언더그라운드 교회가 단지 체제전복적인 척하는 것 이상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옛날처럼 우리 자신의 언더그라운드 경제를 운영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부의 재분배와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에게 무이자 대출이 포함된다.

이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회의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다. 정말로 이것이 심각한 제안일 수 없는가? 살 집을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궁핍한 교인에게 교회가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것이 불가능한가? 새로 직업을 구하기 위한 교육비를 지불해주고 직장을 얻은 후에 이자 없이 상환하도록 하여 그 돈으로 다른 궁핍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 불가능한가? 다시 말해서, 돈을 벌기 위해 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돕기 위해 돈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가? 도대체 그런 급진적인 생각이 어디에서 얻게 되는가? 성경에서 얻을 수 있지 않은가?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었다.” (행4:32-35)

우리는 공동선을 위해 집단적인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위험하며 의심스러운 것으로 매도하기 위해 ‘사회주의’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흔히 ‘기독교 국가’라고 주장한다. 분명히 우리는 초대교회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 ... 예수님의 추종자들은 단순한 나눔의 행동을 통해서, 돈이 하나님의 은총의 징표라는 생각에 맞섰는데, 그 이유는 빗처럼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것이 없으며 또한 경제적인 절망처럼 사람의 정신을 파괴시키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 오늘날 교회에서 사랑받는 공동체의 회원들이 재물을 늘리는 대신에 사람들을 섬기는 새로운 경제를 실행하는 것보다 더욱 문화 대항적인 것은 없을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이 판매용이라는 생각에 대해 뺏속까지 진저리를 치지 않을 사람이 누구이겠는가?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 상품이란 말인가? ... 내가 여기서 제안하는 것은 교회가 강제하는 사회주의 형태가 아니다. 언더그라운드 교회의 모든 교인들은 여전히 자유기업과 자본주의 세상 속에서 살며 일한다. 그러나 교회는 궁핍한 사람들을 도움으로써 그 체제의 칼날을 완화시키는 것이다. 언더그라운드 교회에서 우리는 자비기금을 조성하여, 교회 운영에 사용하지 않고 비상 구제금으로 사용한다는 뜻이다. 자비기금은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하고, 그 기부자들은 대출이 아니라 선물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추천한다. 좀 더 급진적인 것으로서 언더그라운드 교회를 보다 인습적인 공동체들과 분리시키는 것은 순환기금을 조성하여 지원자에게 빌려주었다가 이자 없이 갚게 하여 다른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언더그라운드 은행이 되어, 이자를 붙이지 않는 고대 기독교의 방식을 회복하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담보와 같은 안전장치가 필요할 것이며, 갚지 못할 경우 상환 청구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교회 밖의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공짜 돈”이 아니라 공동체와 언약을 맺은 교인들에게만 대출해주는 기금이다. ...

- 로빈 마이어스, 「언더그라운드 교회」 중에서